

사 회



비닐하우스도... 지난 30일부터 2일까지 쏟아진 대설로 각종 시설물이 파손되고 교통사고가 속출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2일 담양 수북면에서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 이유성(64)씨의 비닐하우스 3동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지붕 철근이 휘어지면서 주저앉았다. /나명주 기자 namj@kwangju.co.kr



광어양식장도... 전남지역을 강타한 폭설로 수산시설까지 큰 재난을 입었다. 2일 완도 군외면 원동리에 있는 한 광어양식장의 지붕이 쌓인 눈의 하중을 이기지 못해 무너져 내렸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 기자 ejchung@



■ 르포 - 새해 폭설 덮친 담양·강진 농가 표정

비닐하우스 ‘폭삭’ 농심 ‘와르르’

애써 키운 블루베리·딸기 농사 피해 눈 치울 일손도 없는데 ... ‘망연자실’

“큰 돈 들여 지은 비닐하우스가 1년도 안 돼 무너져 버렸는데, 어쩌해야 할 지...”
연말 전담을 강타했던 ‘눈폭탄’이 멈춘 2일 오후, 담양에서 5년째 블루베리 농사를 지어온 이유성(64·담양군 수북면 공산리)씨는 먼 밭지에서 망연자실한 채 자신의 밭만 바라보고 있었다. 지난해 봄 작물을 해치는 까마귀떼를 막기 위해 지어놓은 비닐하우스 3동(2479㎡)이 이번 세밑 대설에 폭삭 주저앉아버렸기 때문이다.
연달아 3동이 붙어있는 이씨의 비

닐하우스는 지름 32mm의 철제파이프가 크게 휘어진 채 무너져 있었고 하우스 안 80cm 높이의 블루베리 나무들은 눈에 파묻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찢겨진 비닐 조각만 군데군데 널린 채 강추위 속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이씨는 “속상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당장 복구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한숨만 나오는 노릇”이라고 허탈해 했다. 이씨의 하우스뿐만 아니라 담양 대전면과 월산면 등 광주 인근 곳곳의 비닐하우스는 눈폭탄을 맞아 그 형태를 알아보

기 어려웠다. 특히 대설에 대비, 두께가 예전(25mm)보다 강화된 32mm의 철제파이프를 사용한 하우스들도 기록적인 대설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속절없이 무너져내렸다.
담양 수북면사무소 관계자는 “당장 복구를 계획하기에는 농로 주변에 눈이 너무 많이 쌓여있다”며 “눈이 어느 정도 녹아야 작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설특보가 발효됐던 지난달 30일부터 31일 사이 칠량면, 성전면 등에 35cm 이상의 적설량을 기록했던 강진도 비닐하우스 23개동이 무너지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12년째 딸기농사를 지어오던 김홍석(50·강진군 성전면 도림리)씨 소유 비닐하우스는 6동(4298㎡)이 모두 피해를 입었다.

지난 2005년에도 대설로 피해를 입었던 김씨는 좀 더 내구성이 강화된 최신 시설로 비닐하우스를 다시 지었지만 폭설의 피해를 비켜가지 못했다. 김씨는 “육묘장 등이 눈에 파묻혀 내년 농사가 벌써 걱정된다”며 “다른 시설까지 돌봐야해서 지금은 그저 지켜보기만 할 뿐”이라고 복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농민들의 비닐하우스 피해는 그야말로 눈덩이이지만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근처의 농로 대부분이 제설작업이 안돼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데다 딸기 등 작물의 출하 시기가 겹치다 보니 일손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광주·전남 40cm ‘눈폭탄’ ... 피해 ‘눈덩이’

폭설 피해 집계 70억원 넘어서 빙판길 교통·낙상사고 잇따라

전남 서남부지역에 최고 40cm 등 광주·전남에 폭설이 쏟아지면서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철골구조물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9일 밤부터 전남 지역에 내린 폭설로 모두 70억7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영암의 피해액이 17억5300만원에 달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고, 강진(14억9800만원)·나주(8억8500만원)·완도(7억6500만원)·함평(6억3100만원)·무안(4억7400만원)·장성(2억38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농작물 비닐하우스 피해가 컸다. 나주에서만 8.3ha(111동)의 비닐하우스가 폭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주저앉았고 영암 3.9ha(133동), 함평 3.3ha(51동), 장성 3.1ha(63동), 강진 3.0ha(51동) 등도 같은 피해가 발생, 모두 26억19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뒀다. 또 영암·무안·강진 등의 축사 28동(5.23ha)이 파손돼 25억4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에서도 북구·광산구에서 비닐하우스 9개동이 무너지고 북구 대촌

■ 광주·전남·북 적설량 (단위:cm) (2010. 12. 30 ~ 2011. 1. 2)

지역	적설량	지역	적설량
고창	40.5	진도	21.7
정읍	38.5	완도	17.6
강진	36.5	순천	16.0
영광	31.5	순천	15.0
광주	29.2	군산	12.3
목포	27.8	전주	11.6

동 한 철골 가설 주차장이 붕괴돼 차량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폭설과 함께 추위가 계속되면서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면서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2일 새벽 1시20분께 광주시 북구 임동 무동경기장 앞 천변도로에서 권모(56)씨가 몰던 영업용택시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5m 높이의 전변

아래로 추락해 운전기사 권씨와 승객 임모(여·29)씨가 부상을 입는 등 이 기간 광주에서 1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달 31일부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이날까지 3일간 전 직원과 제설차 15대를 긴급 동원해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해 제설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적설량이 많은데다 이면도로 주민 및 상점이 눈 치우기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광주에서만 18건의 낙상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모(여·54)씨는 “주요 간선도로나 오르막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마치 스케이트장에 온 것 같다”고 토로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북극 고온현상으로 찬 공기 남하

짙은 한파·폭설 원인

기상청은 지난달 이후 한반도에 한파가 자주 엄습하고 폭설이 내린 것은 북극 지방의 기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고창 40.5cm를 최고로, 광주에 29.2cm의 눈이 쌓였다. 또 지난 25일에는 광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9.3도까지 떨어지는 등 호남을 비롯한 한반도가 한파에 시달렸다.
이처럼 강추위가 거듭되고 폭

설이 내리는 것은 북극의 기온이 평년보다 10도 가량 높은 상태가 이어지면서 매우 차가운 공기가 중위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이다.
원래 북극의 찬 공기와 북반구 중저위도의 따뜻한 공기가 대치하는 가운데 한기가 공기 회전 소용돌이 속에 갇히면서 북반구 지역으로 내려올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북극의 기온이 올라가 공기 회전력이 약해지면서 회오리에서 빠져나온 찬 공기가 북반구 중위도로 내려오고 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양수현기자 yang@

‘오현섭 사건’ 연루자 사법 처리 속도

13일 시·도의원 공판 증인 출석 관심

수뢰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현섭(61) 전 여수시장이 1심 재판에서 총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오현섭 뇌물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오는 13일로 예정된 여수 지역 시·도의원들에 대한 2차 공판에는 오 전 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져 재판 결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에 따르면 오 전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여수 시·도의원들에 대한 2차 공판이 오는 13일 열린다.
현재 여수에서는 ‘오현섭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시·도의원 14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시·도의원은 지난달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대부분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은 “돈의 출처가 오 전 시장인 사실은 몰랐다”며 연루 여부를 부인하고 있어 이날 오 전 시장의 법정 진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이 이미 오

전 시장이 여수의 시·도의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오 전 시장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도의원들에게 수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오 전 시장이 각종 공사발주 과정에서 수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오 전 시장은 별도로 기소된 2개의 혐의에 대해 총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법원은 오 전 시장과 공모해 조명업체 N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장 전 국장 김모(여·60)씨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오 전 시장과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N사 대표 남모(52)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승용차 인도 돌진 1명 사망·7명 부상 어제 광주 운암동

광주 도심에서 교통사고 차량이 인도를 덮쳐 보행자 1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오후 5시2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모 고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주모(29)씨가 몰던 승용차가 박모(62)씨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김모(여·60)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보행자 김씨가 숨지고 운전자 주씨와 길을 건너던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좌회전 중 이던 차량 운전자 등도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당시 신호체계와 차량 진행상황을 파악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댄 남자 만나지 마” 대학생 성폭행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지내는 것에 양심을 품고 같은 학과 여자 동기생을 성폭행한 대학생이 경찰서행.
○...2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전모(23·광주 모 대학 4년)씨는 지난해 9월 3일 새벽 2시에 화순군 도곡면 한 모텔에서 학과 동기인 김모(여·22)씨를 성폭행한 등 지난해 10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전씨는 자신이 평소 좋아하던 김씨가 다른 남자와 친하게 지내는 것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는데, 경찰에서 “사귀는 것이냐 마친가”인사이에 해가 될 수도 있는데, 자꾸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만나는 것을 보고 화가 치밀었다”고 진술.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전자 습기제거기 (Avantgarde) New Dry box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 출시

- ★ 기존의 습기제거기 등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UV light자외선을 통해 보청기의 박테리아까지 99.9% 제거해주는 신개념 습기 제거기
- ★ 우리 몸은 수분으로 인해 귀 안에 항상 습기가 차게 됩니다. 이런 습기와 귀지로 인해 보청기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 ★ 보청기는 인체에 착용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므로 살균처리와 청결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알케모르게 보이는 박테리아로 인해 인체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균을 이제는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로 해결하세요.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충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목포점 061-262-9200